

# '기숙형 공립고' 전남 16개교 선정

## 학교별 평균 38억 지원... 2010년 신입생 모집

전남도 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도 전국 최대 선정=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인 기숙형 공립 학교(총 150곳)에 화순고 등 전남지역 16개 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적으로는 82개 고교가 선정됐으며, 나머지 68개 학교는 내년에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 등 5개 시와 진

도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 1곳씩 선정된 것이다.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전남에 이어 경북 13곳, 강원 11곳 등이었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공립고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숙형 공립고의 학생선발 방법은 내년 9월 이전에 발표되고, 2010년부터 신입생을 받는다. 이들 학교에는 평균 38억이 지원된다.

◇어떻게 운영되나=기숙형 공립 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2010년 개교

이전까지 2~4인 1실 형태의 기숙사를 안배해 원하는 학생들이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기숙사 학생 수용률이 학교 상에 따라 평균 43%, 최대 8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선정 학교들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기숙사 홈캠데이, 기숙사 선배 멘토링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계획해 놓고 있다.

◇문제점 없나=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못한 학교의 격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도농간 격차해소와 학사한다 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격차마저 벌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기숙형 공립고

▲기숙형 공립고=통학 시간이 긴 농산어촌 고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시설을 확충, 도농간 교육 격차를 좁히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까지 전국 150곳이 지정된다.

가 전인교육, 인성교육 강화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결국 입시 위주의 '기숙형 학원'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불의의 여동 걸어내는" '검사 선서' 도입 논길

법무부가 신임 검사 임명식 때 검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를 도입해 논길을 끈다.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검사들도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들만의 선서를 읽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개월 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최근 '검사 선서'를 완성해 이달 초 경력 변호사들의 검사 임명식 때 처음으로 이를 낭독하도록 했다.

선서에는 "불의의 여동을 걸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함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 /연합뉴스

### 가을 문턱 8월 27일 (음 7월 27일) 전국날씨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았다.

광주	구름 조금	20~29°C
포항	구름 조금	20~28°C
서울	구름 조금	21~27°C
부산	구름 조금	20~29°C
대구	구름 조금	18~30°C
대전	구름 조금	19~29°C
전주	구름 조금	19~29°C
제주	구름 조금	19~29°C
목포	구름 조금	17~29°C
여수	구름 조금	19~30°C
순천	구름 조금	18~29°C
광양	구름 조금	18~29°C
나주	구름 조금	18~29°C
여수	구름 조금	18~29°C
순천	구름 조금	18~29°C
광양	구름 조금	18~29°C
나주	구름 조금	19~25°C

서울=북서~북동풍 과교 0.5~0.5m  
 부산=북서~북동풍 과교 0.5~1.0m  
 광주=북서~북동풍 과교 1.0~2.0m  
 대구=북서~북동풍 과교 2.0~4.0m

목포 밀물 < 10:49 썰물 < 04:45  
 여수 밀물 < 06:21 썰물 < 00:39

▲해돋이 06:01 ▲해질 19:06  
 ▲달 뜨기 01:33 ▲달 지기 16:46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목)	29(금)	30(토)	31(일)	9/1(월)	2(화)
날씨						
최저/최고	20/30	21/31	22/30	22/29	22/28	22/28

## 5·18 묘지내 건국 60주년 조형물 29일 철거

### 국가보훈처 밝혀

국가보훈처는 5·18단체와 시민들의 철거 논란에 휩싸였던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설치된 '건국 60주년 기념 설치물'을 오는 29일 철거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논란이 제기된 건국 60주년 기념 설치물과 관련, 26일 광주지역에서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오는 31일 철거할 예정이었

던 건국 60주년 설치물을 조기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가보훈처가 이달 말까지 5·18 민주묘지에서 '바람의 향- 거대한 부포' 설치예술품을 열고 5·18 관련단체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건국 60주년'은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전남대 2007학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26일 오전 인문대 앞 교정에서 한 졸업생이 어머니에게 학사모를 씌어주고 있다. 각 단과대별로 학위수여식을 가진 전남대는 이날 학사 1천214명, 석사 617명, 박사 111명 등 총 1천 94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진료비 허위 청구 의료기관 명단 공개

###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병·의원 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병·의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성별 등을 보건복지가족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진료비 허위 청구가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은 명단을 신

문과 방송 등 언론기관에까지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허위 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체납시 미성년 자녀들에게 지우던 연대납부 의무를 '재산 또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에게만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체 미성년자 267만명 가운데 부당산과 자가용 등 재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1만5천500명만이 보호자의 건보료 연체시 대신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연합뉴스

## '약사없는 약국' 광주 13곳 적발

약사 자격도 없이 약국을 열거나 종업원들이 약을 판매하는 '약사 없는 약국'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검역수사대는 지난 6월 11일 이후 집중단속을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13곳을 적발하고 약사 15명 등 총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리의무를 위반한 약사가 5명, 무자격자의 약품판매를 방조한 약사가 10명이었으며 약사가 아니면서도 약국을 개설한 운영자가 3명, 약품을 판매한 종업원 14명도 포함됐다.

무자격 약국 운영자들은 영업 과정에서 알게 된 약사와 짜고 이 약사 명의를 이용한 약국 13곳을 적발하고 약사 15명 등 총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대 선배 사이인 5명의 약사들은 광주와 담양에 5개의 약국을 공동 운영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약국인 아닌 동료의 약국에서 약국장으로 근무 관리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업원이 약을 판매해 전자 '약국에는 약사가 없다'는 말이 많아져 기획수사를 벌였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에 대해서는 등기를 취소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자의 심의는 다른 약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성폭력법 내달부터 '전자 발찌' 찬다

성폭력 전과자들이 다음 달부터 자신의 이동 경로가 그대로 감독 당국에 노출되는 '전자 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 발찌를 차게 될 대상은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람들로, 검찰이 재판 중 형량 구형과 함께 위치 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징역형을 살다 만 기 전에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은 법무부가 위치추적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법무부는 9월 말 가석방 예정인 성폭력범 전자 발찌를 첫 착용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트당 100만원 짜리인 '전자 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돼 있다.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를 주머니 등에 갖고 있어야 하고 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 신호가 들어온다. /연합뉴스

## 대법 "음주 측정시 입 행굴 기회줘야"

음주 측정시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물로 입을 행굴게 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손씨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62%)로 지난해 10월 이모(17)군의 오토바이를 충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사고를 낸 뒤 곧바로 근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사서 3분의 2 정도를 마셨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 10분 뒤, 즉 손씨가 추가로 소주를 마신 직후 손씨의 입 안을 물로 행굴게 하지 않고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대표 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eTour.com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구 도청 앞)

광주남구점 664-654-0033 | 군산점 955-245-9006 | 목포점 381-245-0004  
 순천점 461-755-7114 | 광주북대점 062-227-5310 | 전주북대점 381-291-2655  
 익산점 460-843-3900 | 광주월남점 062-974-3050 | 전주시정점 041-202-3210

대리점모집 ▶모집지역: 광주광역시 및 17개 시도  
 ▶배달지역: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시민 062-226-3571

2008 한국표준협회 선정 한국서비스대상 6년 연속대상수상!

편안하고 안전한 중국여행과 함께하는 **중국 천하절경 시리즈 무안출발**

정통숙박/편승항공

**항주, 황산, 상해 4일**  
 ₩799,000~899,000  
 ▶9/3, 10, 17, 24 10/1, 8, 15, 22, 29

정통숙박/왕복버스

**항주, 황산, 상해 5일**  
 ₩659,000~759,000  
 ▶9/5, 13, 20, 27 10/4, 11, 18, 25

장가계 특선여행

**장가계(월가계), 항주, 상해 5일**  
 ₩969,000~1,139,000  
 ▶9/6, 13, 20, 27 10/4, 11, 18

무안출발 동행자 7% 할인

무안출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관람객 7% 할인

1인당 1만 원 특별할인 혜택

일본 인천출발

부해도 환승여행 4일

₩1,090,000~1,490,000

10/1, 8, 15, 22, 29

일본 인천출발

부해도 환승여행 5일

₩1,170,000~1,340,000

10/1, 8, 15, 22, 29

일본 인천출발

부해도 환승여행 6일

₩1,250,000~1,420,000

10/1, 8, 15, 22, 29

일본 인천출발

부해도 환승여행 7일

₩1,330,000~1,500,000

10/1, 8, 15, 22, 29

일본 인천출발

부해도 환승여행 8일

₩1,410,000~1,580,000

10/1, 8, 15, 22, 29

일본 인천출발

부해도 환승여행 9일

₩1,490,000~1,660,000

10/1, 8, 15, 22, 29

일본 인천출발

부해도 환승여행 10일

₩1,570,000~1,740,000

10/1, 8, 15, 22, 29

일본 인천출발

부해도 환승여행 11일

₩1,650,000~1,820,000

10/1, 8, 15, 22, 29

일본 인천출발

부해도 환승여행 12일

₩1,730,000~1,900,000

10/1, 8, 15, 22, 29